

비수기까지 겹친 한약상가 '기진맥진'

수입주춤덕에 천마값 다소 상승, 전반적 약보합세 물동량 '그자리'

최악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속에서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친 한약상가는 거의 '기진맥진' 상태.

산수유, 시호 등 생산량이 부족해 물량이 달릴 법한 일부 약재들마저 손대는 사람이 없어 시세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국산약재 시세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산지에서 약용작물 파종면적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 감소할 것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다.

황기, 당귀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 재고량이 아직 빠지지 않고 있어 시세는 보합세. 작약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연간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는 품목으로 예년 경기대로라면 제법 오름세를 기대해 볼 만도 하지만 물동량이 빠지지 않고 있어 산지에서의 작업시기도 약 한달 가량 늦춰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처럼 소비부진으로 국산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입시세와 격차가 적은 천마의 경우



국산 물동량이 잘 빠지면서 시세도 다소 오름세다.

그러나 전체 한약업계 경기는 매기도 거의 없고 소비예상량 또한 더욱 불투명해 누구도 앞으로의 시세등락 여부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년 전부터 하락세를 기록한 강활도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 올 여름 긴 장마비 영향으로 작황도 부진한 편이어서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재고량 120t 가량이

아직 빠지지 않고 있어 국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분석. 소비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근당(6백g기준) 4천~4천3백원(절)선이다.

소비부진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근당(6백g기준) 8천5백~9천원선(청양산)에 한약시장에서 도매거래 되고 있다. 진도산은 청양산 보다 5백원~1천원 높은 9천 5백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물동량 빠지지 않고 있어 진도 산지에 아직도 4.5만근 가량이

이 재고로 남아있는 실정.

근당(6백g 기준)도 매시세 상품이 9천원, 중품이 8천원 선으로 지난달 보다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 수유 작황이 부진해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공급량은 상당량 달

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량이 예년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물동량이 뜸해 예상만큼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 지난해 출하량도 소비량을 크게 밀도는 수준이어서 산지에서 9천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여름철 비수기가 지나고 한약 소비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을쯤엔 물량도 부족해 산수유 시세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수입산 보따리 물동량 여부와 한약 시장 경기 정도가 그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동약령시장에서 7월 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당귀 도매시세는 근당(6백g기준) 2천8백원(통), 3천8백원 선(절). 산지에서는 3천~3천1백원 선(절)을 형성하고 있다. 울 파종면적이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작황은 평년작. 산지 저온저장고에 쌓여있는 재고량이 일부 빠져나가긴 했으나 전국적으로 약 1천여근 가량이 아직도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경기활성화 여부가 당귀를 비롯한 여타의 한약재 시세 등락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입 천마시세가 근당(6백g기준) 7~8천원 선으로 오름과 동시에 수입업자들이 천마수입을 자제하면서 국산 천마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물량

〈수입 · 국산 시세비교〉

품 목	수입	국산
구 기 자	7,000	9,000
두 충	4,000	4,500
맥 문 동	6,000	8,500
산 수 유	6,000	9,000
시 호	6,000	15,500
오 미 자	4,000	15,000
백출(절)	3,200	8,500
황 기	4,000	4,700
천 마	8,000	13,000
황 금	4,000	7,800
애 열	800	2,000
익 모 초	800	1,200
박 하	1,000	2,000
택 란	1,200	2,500

(7월말 현재 600g도매시세)

감소로 국내 자연산 및 재배산도 많이 찾고 있는 추세.

7월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3천원 선(재배산)으로 지난달 보다 3천원 폭으로 올랐다. 자연산은 근당 4~5만원선.

올 들어 재배면적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 지황(지황1호), 작황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고. 경북 김천지역의 경우 긴 장마비 영향으로 40~50% 가량이 죽고, 1천4백평 재배면적 가운데 5~6백평 정도가 수확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종근 운반과정에서 훼손된 탓인지 발아율이 썩 좋지 못한 편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생건지황 시세는 근당(6백g기준) 7천~8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국산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 수입지황은 근당 1천원 선으로 국산시세의 8분의1에 불과하다.

상품이 근당(6백g기준) 4천5백원, 중품 3천원, 하품이 2천5백원 선으로 보합세다. 근당 4천원 선인 수입산과 시세차이도 없고 출하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일만도 하지만 워낙 매기가 없어 새로운 시세형성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세하락으로 지난해 보다 재배면적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일천궁. 경북 영양의 경우 울산 예상량은 약 270t으로 지난해 360t보다 약 25%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황은 그런대로 평년작 수준으로 근당(6백g기준) 2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나 물동량은 부진.

■ 이달 관심품목/삼도시호

근당 1만5천원에도 구하기 어려워 품귀

오는 10.11월 즈음에 햇것이 출하될 나을 예정인 삼도시호는 지금 품귀상태다. 시세도 상품이 1만5천5백원 선을 넘어서지만 물량을 구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품귀현상을 이용해 수입삼도시호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삼도시호는 지난 92년까지만 해도 국내 소비되고도 남아 일본으로 수출까지 해 연간 12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농가소득 품목. 그러나 일본 현지사정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 생산기반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값싼 수입산에 밀려 판로도 확실치 않은

데다 판매하더라도 수입산과의 시세차액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생산원가도 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국산시호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산기반이 미약해 물량도 귀하고 부족한 만큼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 비싼 달러를 지불해야 할 형편. 지난해만해도 166t의 시호를 수입해 오는데 16억2천여 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소비했다. 올해는 재배면적도 15만평으로 다소 확대되고 작황도 지금까지는 평년작 또는 풍작을 기대할 수 있어 약 30t가량의 삼도시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시호는 근당(6백g기준) 6천원 선으로 국산의 절반시세에도 못 미치는 수준. 그러나 국산 삼도시호는 수입산에 비해 육이 많고 품질이 우수해 기술 집약적인 농법으로 생산원가 절감과 고품질화를 이룬다면 충분히 경쟁가능성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